

<성적 인증>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년도)		
[redacted]	김범준	[redacted]	[redacted]	[redacted]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나형	영어 영역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아랍어1
표준점수		133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백분위		97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등급		1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020. 12.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시·도	학교명 (학원명)	반	번호
460070610	김범준	남	[redacted]	[redacted]	[redacted]	8	10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아랍어1
표준점수		131	138		68	67	75
백분위		98	98		99	97	96
등급		1	1	2	1	1	1
응시자수	389,646	387,945	257,639	389,040	119,743	26,942	7,893

2020. 10. 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시·도	학교명(학원명)	반	번호
460070602	김범준	남	XXXXXXXXXX		XXXXXXXXXX		2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
			나형	영어 영역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표준점수	XXXXXXXXXX	131	137	XXXXXXXXXX	68	67	66
백분위		95	97		98	97	93
등급	1	2	1	1	1	1	2
응시자수	395,486	394,024	239,327	395,028	118,862	26,892	5,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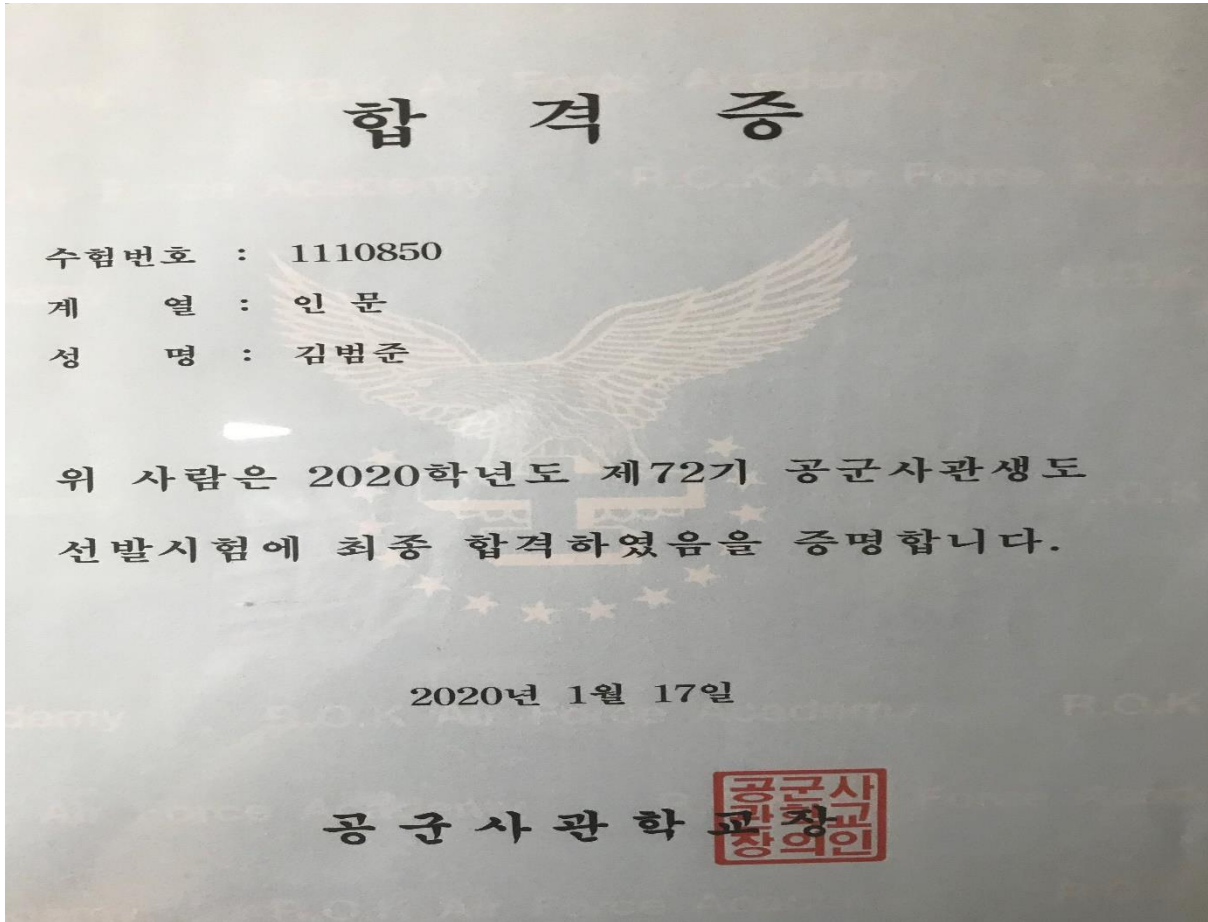
2020. 07. 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요 용어 설명】

(표준점수(제2외국어/한문영역 제외)와 백분위를 합한 점수)의 분포를 얻어 보는 선택 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

<학력 인증>



<가장 빠르게 국어 1등급으로 가는 비문학 읽기>

I. 기본적인 태도

한 문장 한 문장 명확히 이해한다. 문지르고 넘어가는 순간 그 문장이 선지로 나와 반드시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어야 한다.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일수록 '속도'에 집착한다. 속도는 신경 쓰지 않을 때 비로소 잡히는 것이다. 추상적인 문장, 처음 보는 내용일수록 무조건 속도를 늦추고 차분히 읽는다. 이해가 안가는 문장은 2,3번 읽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밑줄 치고 넘어간다.

우리가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데,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정보가 많다는 착각 속에서 글을 읽기에, 글이 어려운 것이다.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글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만약 이러한 생각으로 글을 읽으면 한 지문만 해도 10개 이상의 문장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이해하면 저절로 기억된다는 것을 믿고 강박을 내려놓아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음은 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를 잡으며 읽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정보를 줄이려면 각 문단들이 왜 나왔으며,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을 연결 지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위 문단과 아래 문단을 연결 지어 이해해야 한다. 즉, 글의 구조를 잡으면서 글을 읽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 내가 이해한 문장들이 '조직적으로' 머릿속에 저장된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 글의 내용이 너무 생소하거나 글의 길이가 너무 길다면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말했듯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를 잡으며 읽어야 한다. 3,4,5 등급과 1,2 등급의 차이점 중 하나는 글을 읽으면서 '다시 윗 부분을 읽느냐 안 읽느냐'이다.

II. 구체적인 태도

위 내용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태도를 교정해야 한다.

단도진입적으로 말해서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2개. '축자적 의미'와 '정의된 개념'이다.

먼저 '축자적 의미'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축자적 의미를 동원하면 이 긴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사실/주의 라는 단어 안에 저 의미를 집어넣는 것이다.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재현의 미학'이라는 점에서 '사실'주의라고 말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모방하고, 재현하는 사상이니까 사실주의라고 이름 붙였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정의된 개념은 글 안에서 글쓴이가 정의해주는 개념을 말한다. 글을 읽을 때 정의된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머리속에 각인 될 정도로 섬세하게 읽어야 한다. 정의된 개념은 특정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나면, 항상 "성문법이란 ~~" 이런 식으로 정의된 개념을 써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같이 보자.

"이때 진리연산은 요소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며, 진리연산의 결과는 복합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 주는 진리조건이 된다." 이 문장에서 00란 ~~이다. 형식의 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정의된 개념이 2개나 등장했다. 진리연산의 정의된 개념, 진리 조건의 정의된 개념. 이렇게 정의된 개념은 다양한 문장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할 좀 더 세부적인 개념은 '대화하며 읽기', '부연설명 만들어 내기', '문장의 재구성', '이미지화',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비슷한 단어들이 주는 혼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뇌절 상황',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이다. 전혀 어렵지 않고, 사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들이고, 1등급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내가 정리해서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 개념들을 지문을 읽으며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을 때 하산해도 된다.